

광주·전남 금속노조 두 축 '反 FTA 파업' 잇달린 선택

“정치파업 이제는 싫다”

현대삼호重, 지침 거부 정상 조업... 집행부 사퇴

“(한미FTA체결로) 우리에게 무조건 피해가 있다며 근거도 없고 맞지도 않는 유인물을 만들어 나눠주는데 (노조 집행부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금속노조의 한미FTA반대 파업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29일 전날 전면 사퇴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조합원들은 “무기력한 집행부가 항상 조합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해 왔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삼급단체(금속노조)에 대한 맹종과 투쟁만능주의를 고집해 징계해 고로 인한 소송비용, 생계비지급 등으로 노동조합을 신뢰하는 조합원들이 5%도 모이지 않는 쪼가리 노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일부 조합원은 “이런 집행부는 사퇴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제명처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8일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금속노조의 한미FTA 체결 반대 파업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이려 했으나 노조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정상조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

해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기로 하고 29일 예정된 부분파업도 취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전에 대의원과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으나 대다수가 동참하지 않아 상급 단체의 파업 방침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사퇴했다”고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총조합원 수가 1천700여 명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광주 하남산업단지 내 캐리노조와 함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역 최대 사업장 가운데 한 곳이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이번 파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소집된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대부분의 대의원은 금속노조의 파업 방침에 반대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한 노조원은 “임금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파업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암=김현범기자 hnkim@

“안찍히려면 파업 동참”

기아차 광주공장, 출입문 막고 집회 출석체크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테니, 노조에 찍히지 마세요”
29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 제1공장(카렌스 생산)과 제2공장(스포티지 생산)의 출입문은 어느 때와 달리 단 한 곳씩만 개방됐다. 제1공장은 ‘남문(南門)’·제2공장은 ‘북문(北門)’이 이날 하루 유일한 출입구였다.
그나마 노조 대의원 등이 공장 출입문을 지키며 체포근거를 조합원들의 발길을 잡았다.
오후 1시 30분께 두 출입문에서는 노조 간부들이 확

성기를 동원해 이날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FTA 반대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30분~10시30분까지만 부분 파업을 벌인 뒤 낮 12시까지 정상조업을 했다. 자체 파업시간이 길어질 경우 일부 근로자들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부분 파업 뒤 1시간여 정도 조업시간을 끼워넣은 것이다.
파업과 시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조 집행부가 취한 조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노조 집행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시청 앞 집회현장에서 근로조합별로 일일이 출석까지 체크했다(사진). 이 때문에 집회 현장에는 600여명의 기아차 노조원들이 모였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노조 간부들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마자 집회장을 빠져 나갔다.
기아차 근로자 정모(39)씨는 “노조 대의원이 공장 곳곳을 돌며 ‘이번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업포를 놓고 ‘야간조까지 집회에 참석하라’고 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나원침 (7249)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hemicals Corporation)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DS 건설(주), KCC향토 시스텔향토 생산·시공, and (주)본드나리.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Advertisement for a job or recruitment agency, mentioning a salary of 3,813 and a phone number 367-9000.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미관광장에서 노동자·농민 등 3천여명의 시위대가 광주시청 집회를 시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박” 속여 완도 섬 팔아 강종만 영광군수 징역 7년

34억 부당이익 5명 검거 광주지법, 추징금 등 1억

서늘지역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정부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개발 사업안)를 빙자해 완도지역 일부 섬(무인도)을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팔아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청은 29일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무인도(약 27만6천20㎡)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정부 사업으로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모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장모(여·42)씨와 전무 박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5년 8월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2006년 말까지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J프로젝트에 따라 큰 이익이 기대된다”며 완도군 금일읍 소재 한 섬을 백모씨 등 220여명에게 팔아 34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였다.
장씨 등이 판 섬들은 정부의 J프로젝트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들어간 뒤 길이 없어 기어올라가야 하는 악산(惡山)인 데다 군사시설 등이 있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으로 밝혀졌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업자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속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2부(강신중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몰수와 추징금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치단체장인데도 오히려 그 같은 직위를 이용해 취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군 발주공사와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10만원권 수표 1억원을 받은 뒤 수표권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3차례에 걸쳐 나눠 챙긴 점 ▲구체적인 리베이트 비율까지 제시하는 등 부도덕성을 보인 점 ▲검찰에 자수하고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反 FTA 시위 격렬 충돌

노동자·농민 3천여명 광주시청앞서 경찰과 ‘몸싸움’

29일 광주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중총동맹 광주·전남본부와 농민회 소속 노동자·농민 3천여 명은 FTA추가협상이 타결된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시·도민 결의대회’를 갖고 한미FTA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맞서 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시청 주변을 둘러싸 바리케이드를 쳤고, 전·의경 19개 중대, 2천여 명을 배치했다.
시위대는 경찰 수송 버스 타이어를 구멍 낸 뒤 차체에 밧줄을 걸고 뒤집으려고 하는 등 소화기를 뿌리며 진압하는 경찰과 30여 분 동안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모(22)수경 등이 시위대가 던진 대나무에 눈을 다치는 등 전·의경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시청 입구 신호등도 이들에 의해 심하게 흔들린 차량에 부딪혀 엇가락처럼 휘어졌다.
또 수송 버스 9대의 유리창과 차체가 파손됐고, 시위대가 던진 돌로 시

청 앞 광장 일대가 한 때 이수리장이 됐다.
앞서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한미 FTA의 원천 무효화 ▲지나해 반 FTA 집회 당시 광주시청 사파손에 대한 시 측의 손해배상 임시압류 철회 ▲시청 관리 용역직원의 복직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수송 버스 전복 우려가 커지자 진입에 나서 ‘광주·전남법정연대’ 소속 노조원 박모(35)씨 등 3명을 연행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종합최고상 송원초·동아여중·광주예고

본사주최 제52회 호남예술제 시상...개인 27명 수상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 5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과 작품 발표회가 29일 오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송원초등학교, 동아여중, 광주예고가 종합최고상을 차지해 우수기와 우수컵, 상장 및

부상을 받았으며 살레시오초등학교와 동성여중, 광주수피아여고는 종합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현대무용의 서운영(수피아여고 3년)양이 올해 신설된 국악의장상을, 성악의 안세권(완도고 3년)군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27명이 최고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 열린 최고상 작품 발표회에서는 음악·무용·국악·부문 단체와 개인 수상자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9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에서 광양제철남초 어린이들이 국악합주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June 30th (Monday, June 16th).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a table of temperatures for different locations, and a table of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various locations.

광주 첫 열대야 28일 최저기온 25.2도

28일 광주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루 최저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열대야(熱帶夜)현상이 나타나,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28일 광주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25.2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며 “장마전선이 북상함으로써 남부지방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야간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에서도 ▲영광 25.3도 ▲나주 25.2도 ▲함평 25.0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처음 열대야가 나타난 7월 13일에 비하면 보름가량 이른 것으로 올해는 평년보다 아열대 고기압이 발달해 있어서 열대야 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남부지역의 열대야 일수는 11일이었다.
주말에는 점점 흐려지다가 휴일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폭 6명 사형 구형

범직단체활동죄 첫 적용
검찰이 그동안 조폭들에게 적용했던 폭행·상해죄와 달리 범죄단체에 속해 활동하는 구성원들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된 범죄단체활동죄(2006년 3월 24일 개정)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박재형 검사는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 홍승민 부장판사 심리로 310호 법정에서 열린 조직폭력배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원 남문과 행동대장 신모(22)씨 등 6명에게 사형을, 조직원 하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이찬은 기소 이민영은 기소유예

이찬은 기소 이민영은 기소유예
○결혼 직후 폭행 등으로 파경을 맞은 탤런트 이찬·이민영 부부 가운데 이찬씨만 법정에서 기소됐고, 이민영씨는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19일경 이 이민영씨를 때려 전치 32일의 상체를 입히는 등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7차례 이민영씨를 때린 혐의(상해 등)로 이찬씨를 29일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민영씨도 이찬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체를 입힌 사실 혐의가 있지만, ▲이찬씨보다 피해가 훨씬 큰 점 ▲초범인 데다 우발적인 대항 과정에서 폭행한 점을 감안해 죄는 인정하지만 기소를 면해주는 기소유예 처분기로 결정.
/연합뉴스

